이모저모

결사대중이 오로지 걷는 수행 만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출발시간에 맞춰 사실상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해 온 이들이다.

수차례의 사전답사와 회의가 진행됐고, 6개 조마다 조장이, 운영지원팀과 순례팀, 의료팀 등의 지원이 있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송현석 기자



순례 핵심은 '걷기'

준비운동 | 인도만행결사에 앞서 열린 태화산 예비순례의 핵심은 걷기다. 매일 30여 km이상의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잘 걷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걷기 운동 전문가인 성기홍 바이탈식스랩 대표가 순례의 베이스캠프인 한국문화연수원을 찾아 잘 걷는 법과 걷기 전 준비운동을 가르쳤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출발전 몸풀기 준비운동을 진행됐다.



결사대중 발, 우리가 책임

의료 | 행렬 후미에는 김명숙 의료팀장을 포함한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료팀이 타고 있는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 중이었다. 발에 생기는 물집부터 풀벌레에 쏘여 생긴 두드러기, 체력이 떨어져 생기는 각종 낙상, 골절사고 등을 치료했다.

잦은 기상변화 속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고 대중들 속으로 앰뷸런스는 즉각 달렸다.

"간절한 원력, 불교중흥 이끈다"

자승 스님,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서 역설

태화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0일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을 겸한 자자의 자리에서 불교중흥에 간절함의 필요성과 불교 각 분야서의 원력결집을 역설했다. 또 태화산 예비순례에 대한 평가와 2차 예비순례에 치열하게 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자승 스님은 "자자를 시작하기 전 조계사에서 피자 대중공양을 올렸다. 이 피자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8개월 전 상월선원 안에서 먹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피자가 정말 맛있어서 퍽퍽한 끝 부분의 밀가루가 단맛이 날 때까지 꼭꼭 씹어 먹은 기억이 난다. 오늘보니 토핑이 올려진 부분만 먹는 것을 봤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피자가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고 대중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 중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학인은 학인 위치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학인이 다른 것을 하니 중흥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수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면 중흥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다"며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 선방 수좌가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져도 도를 깨치겠단 원력이 있고, 기도하는 스님이 목젖이 터져도 내 기도를 듣는 이가 기도성취를 하게 해주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스님은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길에서 죽겠다 하면 중흥 불사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력이 부족하다"며

"원력있다면 '중흥' 말 필요 없어"

"이번엔 걷기 맛보기" 엄격 평가

2차 예비순례 '인도 상황 그대로'

"불교단체, 종립학교 임직원, 이판과 사판을 통틀어 모든 스님들 중 수행과 전법으로 마치지 않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예비순례에 대한 자승 스님의 평가는 참가대중들과 달리 엄격했다. 스님은 "이번 예비순례 3일간 만행결사는 걷는 것을 빼고는 7성급 호텔에서 지낸 가장 호화로운 결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하며 "2차 만행결사는 인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3일은 걷는 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체험하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예비순례서 빠르게 걸어 힘들었다는 일부 대중들의 목소리에 대해 "빠르다고 무전이 왔는데 평소 걷는 패턴대로 가겠다고 했다. '내가 인도에서 45일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순례로 많은 이들이 걷는 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생각과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틈나는 대로 걷지 않으면 45일간 인도서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인도만행결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대중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교 중흥의 원력이 될 것이다. 꼭 그런 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3박 4일간 너무나 애쓰고 고생했다. 21일 기도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7월 28일 첫 일정 후 대중과의 만남서 울컥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는 언론들이 침체된 불교의 새로운 신심과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0일 회향식을 겸한 자자의 자리에서 이번 순례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있다.

결사대중 "만행결사, 불교와 삶 바꿀 기회"

자자서 신심 · 원력 · 감사 표현해

7월 30일 태화산 예비순례 회향에 앞선 자자(自恣)서는 사부대중의 예비순례를 마친 소감과 함께 불교 중흥에 대한 신심과 원력, 그리고 예비순례를 비롯해 만행결사에 대한 감사로 채워졌다.

먼저 스님들은 불교중흥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천막결사에서의 정진과 함께 제2의 상월선원 결사를 준비하는 예비순례를 이어가는 등 실천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실천이 대중에 각인되면 불교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총도감인 혜일 스님은 "회주 스님은 자비, 하심, 봉사 등을 강조하셨다. 불교를 대중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10월 국내 순례에 보다 많은 대중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행문화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템플스테이 전문위원 하원 스님은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의 수행을 경험하고 한국불교 수행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 만행결사는 새로운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를 만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템플스테이와 걷기, 순례를 묶어 개발하는 화두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자자에서 대중들이 기립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자자는 결사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됐다.

문화부장 오심 스님도 "인연이 된다면 2차 예비순례도 가고 인도서도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걸을 예정"이라며 "수미산에 가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삼보일배를 하는 것을 보고 펑펑 운적이 있다. 불교중흥을 위해 한번 사는 인생, 멋진 수행 하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현민 스님은 "앞선 스님의 신발이 이번 순례에서 스승이 됐고, 기자들이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에 부끄러워 꾀를 부리지 못했다"며 "운동한 시간이 많지 않아 자신이 없었는데, 따라하니 참 행복했다. 이번 결사가 스스로를 바꾸고, 불교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가 사부대중 모두에게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비구니 스님 중 가장 세납이 높은 정혜 스님은 "정진에 대한 새로운 계기에 나이가 들어 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걸음에 오게 됐다. 각계각층에서 불교를 위해 일하는 우바새 우바이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맞게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자들은 이번 예비순례의 계기를 만들어 준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 대한 감사와 이어지는 순례에 대한 동참의지를 북돋았다.

재가자 대표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한국불교 중흥이란 역사적인 결사에 재가자들의 동참을 열어준 회주 스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가자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 준 스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인도만행결사에서도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날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대불련 간사인 라원준 씨는 "절실히 발원한다면 이뤄지는 것이 있다.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의 발원으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며 "청년불자들의 동참에도 밑거름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해에서 온 백금석 씨는 "원력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차 걷다보니 어느새 끝나 있었다. 사부대중이 함께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온 김정숙 씨는 "엄청난 폭우가 시험했지만,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떼다보니 아픔과 통증도 사라지고 걷는 것만 남았다. 언제 비가오는 날 대중과 함께 이렇게 걸을까"라며 "아이들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순간을 잘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보장된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 모두가 순간을 잘 살면 불교 중흥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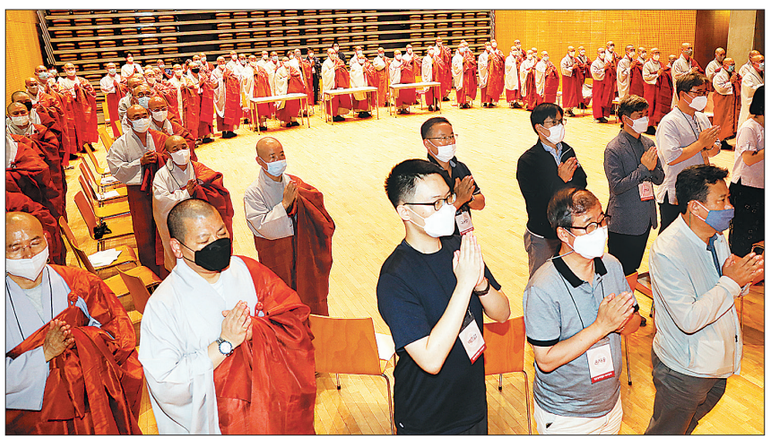
김봉석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바라보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 한국불교 변화를 바라는 불자들이 많은 감흥을 받고 있다. 오늘 이런 것들이 한국불교의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PHOTO 태화산 예비순례


인도만행결사 예비순례가 공주 태화산 일원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더위와 폭우에도 순례 참가 대중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순례를 마쳤다. 불교중흥을 위해 걸었던 3일 간의 시간들을 렌즈에 담았다. 사진=박재완 · 송현석 기자

입재식


인도만행결사 예비순례가 열리기 하루 전인 7월 27일 봉행된 입재식에서 참가대중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예비순례 입재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가대중을 격려하고 있다.

첫째날


만행결사 예비순례를 시작한 대중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하루 30여km를 걸었다.


첫날 순례를 마친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